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제목	춘야희우(부제: 한 봄밤의 꿈)
수상내역	우수상
작가	이외숙
소재	과거 울산의 지리적인 특성과 정치적인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구성
기획의도	이정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어떻게 가뭄이라는 자연재해 해결과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교훈적 이야기
시놉시스	<p>* 부사,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다. 예로부터 울산은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꼽혔다. 최고 권력자였지만 임기 6년을 채우는 일은 드물었다. 이정인은 1796년에 부임한 이래 6년 임기를 채웠다고 한다. 이정인이 고을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었을까?</p> <p>* 비 오기를 빌던 제사, 기우제 울산은 물이 귀한 고장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실제로 이정인이 부임하기 한 해 전,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정인은 어떻게든 가뭄을 해결해야만 했을 것이다.</p> <p>* 선바위와 입암정 그리고 이정인, 세 단어 사이에 숨은 사연 스토리는 이정인과 입암정, 그 사이에 비밀스런 인물 '태화강 노인'을 등장시켜 사연을 풀어나간다.</p>

# 춘야희우(부제: 한 봄밤의 꿈)

## 썸 1. 한양 거리(낮)

울산 부사로 임명받은 이정인이 가마를 타고 한양에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신임 부사의 행차에는 깃발을 든 기수, 포졸 등이 뒤따르고 있다. 보통 행차에 함께하는 기녀, 풍물패는 찾아볼 수 없고 이정인의 부사 행차는 그의 성품대로 소박하기만 하다. 행인들은 신기한 듯 행차를 구경한다.

(E / 임금 목소리)

얼마 전 암행어사 박곤수와 소견하였다. 그의 말이... 울산의 백성들이 환곡의 폐해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 하느라.

## 썸 2. 플래시백 / 어느 초가집(낮)

포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마음대로 집을 뒤지고 있다.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고 있다.

노인 : 쌀을 받아 온 일도 없는데 갚으라니 무신 말이소…….

포졸 : (장부를 들이밀며) 어디서 거짓부렁을 하느냐? 여기 적힌 게 안 봐느냐?

포졸들이 노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한다.

## 썸 3. 플래시백 / 동헌(낮)

한 장정이 엉덩이에 곤장을 맞고 있다.

형방 : 이자를 못 내졌으면 매라도 대신 맞아라.

장정 : 빌린 건 한 섬인데 어째 두 섬인교... 이자가 너무한 거 아인교... 빌린 지 한 달도 안 됐는디…….

형방 : 특별히 싼 이자로 환곡을 내줬는데, 이자가 높다니! 은혜도 모르는 천한 놈 같으니라고... 뭐 하노? 어이 매질을 더 해라.

## 썸 4. 플래시백 / 어느 집 방 안(밤)

좁디좁은 방에 늙은 아버와 앓던 딸이 앉아 있다. 딸은 계속 울고 있고 아버지는 애써

그 모습을 못 본 척 한다.

딸 : 아버지... 지... 팔리가는 겁니까?

아버지 : (눈물을 삼키며) 우짜겠노... 가난뱅이 부모를 만나 탓이려니... 모질은 니 팔자 탓이려니 생각하니라.....

딸 : 가기 싫습니다...

아버지 : (돌아앉으며) 미안하다.....

(E / 임금 목소리)

하여 그대를 새로운 부사로 임명하니, 나를 대신하여 부디 고을 백성들을 청렴결백으로 살피주어라. 몇 달 전부터 가뭄이 심하다고 하니 정성으로 기우제를 마련하여 지내도록 하라.

(E / 이정인 목소리)

명을 받들겠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CU) 가마 위 이정인의 얼굴

이정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바라본다.

## 췌 5. 동헌(반학헌) / 낮

호방 서원 : (이정인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온다. 그러다가 자기 발에 걸려 크게 넘어진다.)

울산 부사 이정인 : (걱정하며) 괜찮은가?

서원 :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며) 벌써 오셨는교? 미시에 당도하신다 연락받았는데... 지가 한양까지 되시러 갈라졌는데 오지 말라케서 가지도 못했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며) 오늘부터 부사 나리를 도울 호방 서원이라 갑니다.

이정인 : 반갑네. 이 고을 토박이니 여러 가지로 잘 좀 알려주게. 가뭄이 매우 심하다고 들었는데 어쩐가?

서원 :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말도 마이소. 비가 얼마나 안 왔는지 장정 밭이 푸욱 들어갈 정도로 땅이 갈라졌습니다요. 아무리 가물다케도 마른 법이 없다카는 고현산 계곡물마저 말랐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정인 : 고을 백성들이 어찌 사는지 시찰을 나가봐야겠네.

서원 : 부임하신 날이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요. 마실 살피는 일은 내일 나가시는 게 어떻겠는교.....

이정인 : 고을 사정이 이리 안 좋은데 팔자 좋게 연회라니... 안 될 말이네. 바로 둘러볼 것이니 나를 따르게.

## 썸 6. 고을 거리(낮)

가뭄 때문에 살기 힘든 고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진다. 고을 하천 근처에 다다른 부사 일행. 그곳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가물어 물이 마른 하천에서 조금이라도 물을 뜨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본다.

이정인 : (안타까워하며) 기우제는 지냈는가?

서원 : 그기... 지내긴 했는데, 정성이 부족했는가 반 년 동안 비는 귀경도 못했습니다요.

이정인 : 허허, 큰일이구나.

서원 : 증말 어째야 할지 도통 몰겠습니다.....

이정인 : 다시 기우제를 지낼 것이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게.

서원 : 알겠습니다요. 부사 나리.

## 썸 7. 고현산(낮)

부사 이정인, 호방 서원, 장의가 산을 오른다. 서원은 기우제에 필요한 음식을 넣은 봇짐을 메고, 맨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

서원 : (헉헉대며) 부사 나리... 쯔만 천천히 가입시더.....

이정인 : 빨리 오게.....

## 썸 8. 고현산 정상(밤)

서원의 도움을 받아 이정인이 돼지머리, 시루떡, 과일 등을 정성스럽게 돌 위에 차린다.

이정인이 축문을 읽는다.

(축문 내용)

병진년 신령님께 아뢰입니다.

가뭄으로 먹을 물이 부족하니

백성이 절망하고 모두 근심하나이다.

신명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밝게 살피시어 큰 비를 내려주시면

그 큰 덕을 어찌 잊으리요.

이에 정성을 드려 제사를 지내오니 내려보시고 흠양하옵소서.

축문 종이를 태운 뒤 서원과 장의가 근처에서 술가지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운다.

#### 썸 9. 어느 초가집(아침)

닭이 울자 밤새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에 한 남자가 맨발로 문을 열고 나온다. 여전히 마른 땅을 보고는 실망하여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 썸 10. 동헌(낮)

이정인 : 고을 사람들 근심은 늘어만 가는데 비는 오지 않으니…….

서원 : (위를 쳐다보며) 신령님이 단디 화가 났다카니까요…….

이정인 :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서원 : 부사 나리, 이 방법은 어떻게능교…….

이정인 : 무엇인가? 이거저거 가릴 때가 아니니 서둘러 말해 보게.

서원 : 예부터 이 마실에 전해 내려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마침 대보름도 다가오니께…….

#### 썸 11. 어느 집 안(낮)

아낙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닥줄을 꼬고 있다.

아낙 1 : (옆에 있는 아낙을 쳐다보며) 요령 피우지들 말고… 차개차개… 단디 맹글어…….

아낙 2 : 아이고, 걱정 마라.

아낙 1 : 이번엔 틀림없이 비가 올기라…….

#### 썸 12. 골목(낮)

아낙들이 가닥줄을 겹겹이 꼬아 원줄을 만들고 있다.

#### 썸 13. 골목(보름밤)

부산스러운 고을 사람들 모습이 보여진다.

(CU) 보름달

#### 썸 14. 골목(보름밤) 2

아랫동네와 윗동네 사람들이 각각 만든 줄을 들고(침목을 깔아서) 고을 입구에 있는 하천으로 모인다.

#### 썸 15. 고을 입구(밤)

대장으로 분한 부사 이정인의 신호에 맞추어 아랫동네 편과 윗동네 편이 줄다리기를 한다. 주변에는 풍물패들이 신나게 풍악을 울리고, 아이들과 여자, 노인들이 주변에서 구경을 하며 노래를 부른다.

우이야 허허 우이야 허허  
 우이야 허허 우이야 허허  
 용왕전에 들리도록 우이야 허허  
 큰소리로 외쳐주소 우이야 허허  
 용왕님이 감동하사 우이야 허허  
 비구름이 몰려든다 우이야 허허  
 우이야 허허 우이야 허허  
 우이야 허허 우이야 허허  
 .....

#### 썸 16. 다음 날 우물가(아침)

우물에서 아낙이 박을 내린다. 물이 가물어 바닥에 박이 부딪히는 소리만 크게 들린다. 아낙은 낙심하며 빈 물통을 들고 돌아간다.

#### 썸 17. 주막거리(낮)

말을 타고 주막거리를 지나가는 이정인과 서원. 봇짐을 멘 행인들이 그들 뒤에서 수군거린다.

행인 1(남자) : 새로 온 부사도 어쩔 수 없는갑소.

행인 2(남자) : 그카니까. 아직도 비가 안 오니. 올해 농사는 망쳤다, 망쳤어.

행인 1(남자) : 증말로 걱정이네.....

서원 :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화가 나서) 지금 뭐라했소? 이 사람들이 듣자든 자카니까.....

이정인 : 이보게... 그만하게.....

서원 : 아이, 사정도 모르고 맘대로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이정인 : 괜찮으니 그냥 오게.....

서원 : (애써 참으며) 입서버리 조심하게! (이정인이 탄 말을 서둘러 뒤따라간다.)

## 썸 18. 동헌 내아 방 안(밤)

부사 이정인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 썸 19. 동헌 내아 마당(밤)

결국 이정인이 방을 나와 근심에 잠겨 내아 마당을 왔다 갔다 한다.

## 썸 20. 동헌(아침)

이정인 : 호방, 자네 어디 있는가?

서원 : (멀리서 뛰어오며) 부사 나리, 지 여기 있습니다요. (이정인 앞에 도착해서 헉헉거리며) 아침부터 무슨 일인교?

이정인 : 이 고을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 있는가?

서원 : 있긴 한디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요?

이정인 : 잡아야겠네... 호랑이를.

서원 : (크게 놀라며) 예에?

## 썸 21. 마골산(낮)

이정인과 서원, 사냥꾼 몇 사람이 말을 타고 산길을 가고 있다.

서원 : (계속 궁시렁댄다.) 사냥꾼들 가면 댜제 내까지 갈 필요가 뭐 있노.....

이정인 : (서원이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혹시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인가?

서원 : (오버하며) 아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마~침 배쁜 일도 있고, 동헌도 지키야 하고... 뭇보담도 이리 쇠빠지게 애써도 비가 안 오니까 그라는 거 아인교.....

이정인 :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데 자네가 빠지면 안 되지.....

서원 : 그카니까 이리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 썸 22. 마골산 목장 근처(낮)

이정인, 서원, 사냥꾼 몇 사람이 흩어져서 호랑이 흔적을 찾는다. 이정인이 땅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한다.

### 썸 23. 마골산 계곡(해질 무렵)

이정인은 발자국을 따라 주위를 탐색하다가 근처 골짜기에 도착한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뒤돌아서니 나무 사이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재빠르게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았으나 명중하지 못한다. 돌아서다 소나무 가지에 걸려 이정인은 말에서 떨어지고 만다. 드디어 마주하게 된 부사 이정인과 호랑이.

화살에 맞아 난폭해진 호랑이는 이정인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이정인은 호랑이와 뿔뿔히 죽을힘을 다해 혈투를 벌인다. 잠깐 집중력이 떨어진 틈을 타 호랑이가 이정인의 목을 물려고 하는 순간!

뒤 이어 나타난 사냥꾼들이 쏜 화살에 맞아 호랑이가 죽는다. 이정인은 정신을 잃고 만다. 서원은 겁에 질려 멀찍이 떨어져서는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다가, 사냥꾼들이 쏜 화살에 호랑이가 죽자 안도한다. 그제서야 쓰러진 이정인을 발견하고 말에서 내리며 달려온다.

서원 : (이정인의 몸을 흔들며) 아이고, 나리. 정신 좀 차리소. 정신 좀 차리란 말이요. 이 일을 우야꼬... (더 세게 흔들며) 죽었능교? 진짜 죽었단 말인교?

이정인 : (힘겹게 눈을 뜨며) 호랑이는... 잡았는가?

서원 : 나리!! (부사를 끌어안는다.)

### 썸 24. 동헌 내아(아침)

이정인이 정갈한 자세로 목욕을 하고 있다. 뺨에는 호랑이에게 물린 상처가 남았다.

### 썸 25. 신불산 파래소 폭포(낮)

이정인과 서원이 폭포 근처에 나무와 풀을 이용해서 초막을 세운다.

### 썸 26. 신불산 파래소 폭포(자정)

이정인이 호랑이 머리를 폭포 쪽으로 힘껏 던진다. 폭포 근처에는 상이 차려져 있다.

서원 : 신령님, 참말로 이래도 비를 안 내려주실기요?

서원과 이정인이 함께 절을 올린다.

## 썸 27. 신불산(아침)

기우제가 끝나고 산을 내려가고 있다. 그 길 끝에 남자아이가 한 명 쓰러져 있다. 아이는 얼마나 배를 곯았는지 뼈쩍 마른 모습이다.

이정인 : (서원을 보며)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게.

서원 : 알겠습니다요.

서원이 남자아이에게 달려간다. 아이의 숨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어둡다. 다시 이정인 쪽으로 온다.

이정인 : 상태가 어떠한가?

서원 : 거기... 맥이 뛰지를 않습니다요.

이정인 : 죽었던 말인가?

서원 : 예.....

이정인 : .....  
서원 : 배가 곯아 산에 나무뿌리라도 캐러 왔다 이리 됐는갑소. 안 그래도 먹을 것이 부족한디... 가뭄까정 겹쳤으니.....

이정인 : (가슴이 아프다. 아이의 시신 쪽으로 걸어간다.)

서원 : 우짜실라고요?

이정인 : 가족을 찾아 아이의 시신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원 : .....  
기우제 때 썼던 천으로 아이의 시신을 싸서 이정인이 직접 시신을 들고 내려온다.

## 썸 28. 누정(낮)

이정인이 홀로 누정에 올라 있다.

이정인 : 이리 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애초에 내가 부덕한 탓인가.....

## 썸 29. 동헌 내아 이정인의 방(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든 이정인. 꿈을 꾸고는 잠에서 깨어난다.

### 썸 30. 동헌 마굿간(밤)

서둘러 옷을 갖춰 입고 나온 이정인이 말에 올라탄다.

### 썸 31. 들판(밤)

이정인이 열심히 말을 몰아 달린다.

### 썸 32. 태화강 나루터(밤)

강 나루터에 도착한 이정인. 그곳에는 뱃사공 없이 노는 배 한 척이 있다. 이정인은 무엇에 홀린 듯 그 배를 탄다. 그러자 배는 노를 젓는 사람이 없는데도 홀로 떠간다.

### 썸 33. 태화강(밤)

이정인은 배를 타고 가며 꿈속 장면을 떠올린다.

(인서트 - 꿈속 내용)

달밤, 강에 작은 배 하나가 떠 있다. 가뭄에 모든 곳의 물이 가물었으나 이상하게도 이곳의 강물은 넘쳐흐르고, 주위는 물안개로 싸여 신비롭다. 현실인 듯 꿈인 듯, 실제 모습인지 그림 속인지 알 길이 없다. 경칩이 지났으나 아직 때가 아닌데도 강물 위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를 복사꽃잎들이 가랑비가 되어 떨어져 내린다.

배에는 노인 한 사람이 옥피리를 불며 앉아 있는데, 피리 소리 때문에 뒷모습이 더욱 더 구슬프다. 노인은 하얀 옷을 입었고, 유난스러울 정도로 흰 수염이 길게 나 있다.

### 썸 34. 태화강 선바위 근처(밤)

배 위의 이정인. 울산의 모든 물이 말랐으나 꿈속에서나마 그곳은 물이 흘러 넘쳐흐렀던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마주한 풍경은 과연... 꿈속의 모습과 똑같다.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이정인이 탄 배가 저절로 속도를 내더니 노인이 탄 배 근처에 다다른다. 때마침 노인이 시를 읊는다. 노인의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다.

(꽃 사이에서 술 한 병을

벗 없이 홀로 마시네

잔을 들어 달을 맞으니

내 그림자까지 셋이 되었구나

달이야 본디 술을 못하지만  
그림자는 불평 없이 나를 따르네  
달과 그림자 잠시 벗어나  
이 봄을 한껏 즐겨 볼까  
.....)

시를 다 외자 노인은 술잔의 술을 한 번에 털어 마신다.

노인 :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셋이 아니라 그림자가 넷이었구려. (이정인 쪽으로 뒤 돌아본다.)

이정인 : 이백의 <월하독작>, 오늘 밤 이곳과 잘 어울립니다. 뉘신지는 모르나 한 잔 청해도 되겠습니까?

노인 : 권하는 잔 거절 않고, 청하는 술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내가 아는 도라네. (이정인이 탄 배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노인이 탄 배 옆으로 바짝 다가간다. 노인이 술잔에 술을 따르며) 받게.

이정인 : (노인이 주는 술을 마신다.) 처음 맛보는 술이나 그 맛이 참으로 좋습니다.

노인 : 그 옛날 해모수가 마셨던 술이라네. 이 술로 능신 연못가에서 하백의 세 자매를 취하게 하였지.

이정인은 노인의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술 때문인지 이곳 분위기 때문인지 갑자기 이정인은 정신을 잃고 배 위에 쓰러진다.

### 썸 35. 나루터(새벽)

정신을 차려보니 나루터 위에 홀로 누워 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걸 느끼고는 간밤에 노인과 술을 마셨던 일이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썸 36. 나루터(그날 밤)

말을 탄 이정인이 나루터 앞에 도착한다. 그의 손에는 보자기가 하나 들려 있다. 마치 이정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제 탔던 배가 나루터 앞에 나타난다.

### 썸 37. 태화강 중류(밤)

노인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이정인이 탄 배가 조용히 멈춰 선다. 노인이 배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이정인 : 어르신!

노인 :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며,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놀라지 않는다.) 왔는가?

이정인 : (보자기를 들어 보이며) 귀한 술을 주셨기에 답례를 하고자 왔습니다.

노인 : (기뻐하며) 마침 좋은 안주거리가 있다네.

### 썸 38. 배 위(밤)

이정인이 탄 배의 머리와 노인이 탄 뱃머리가 바짝 붙어 있다. 노인은 낚시로 잡은 농어를 손질하여 안주거리를 마련한다. 이정인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본다.

노인 :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텐가? 어이 술을 꺼내게.

이정인 : (뱃머리 쪽으로 더 가까이 와서 보자기를 푼다. 그 안에는 술잔과 함께 술병이 있다. 잔에 술을 따라서 노인에게 권한다.)

노인 : (술을 들이킨다.) 향이 참 좋구려. 그래 무슨 술인가? (술을 따라서 이정인에게 다시 잔을 넘긴다.)

이정인 : (노인에게 받은 술을 마시고는) 녹파주라 하는 술입니다. 잔 속에 담긴 술의 모양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은 술이지요(다시 잔에 술을 따라 노인에게 전한다).

노인 : (잔 속을 들여다보며) 빛깔이 푸르스름하니, 정말로 파도를 닮았구려(술을 마신다).

이정인 : 수박향이 난다 하여 더 귀한 술이지요.

노인 : (웃으며) 석잔 술을 주고받았으니 그대와 나는 이제 우인이 되었네.

이정인 : 새 벼를 사귀었으니 가만있을 수가 없군요. 제가 시 하나 읊어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 물론이네. 해 보게나.

(이 세상 삶은 꿈과 같은데  
어찌 한 생을 애태워 살리오  
그러기에 이 몸은 하루 종일 취하여  
앞마루에 쓰러졌네

깨어나 마당 앞을 바라보니  
새 한 마리 꽃 사이에서 울고 있구나  
문건대 도대체  
이 어느 때란 말인가  
봄바람은 찢꼬리 소리를

들려주는구나

몹시 한탄스러워

또다시 잔 기울이며

달 기다려 한 곡을 뽑았더니

모든 시름 잊어버렸네)

노인 : (즐거워하며 술을 한 잔 더 마신다.)

이정인 : 이백의 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노인 : 그렇다네. 나와는 둘도 없는 친한 벗이었지.

이백과 친구였다는 노인의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상스럽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는 노인의 모습에서 천천히 강 전체의 모습으로 화면이 넘어간다.

### 췌 39. 관현(아침)

이정인이 관현 앞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린다. 그 모습을 보고 서원이 뛰어온다.

서원 : 나리, 밤새 어디를 갔다 오십니까요?

이정인 : (미소를 지으며) 비밀이라네…….

서원 : (이정인의 뒤를 쫓으며) 지한테까지 이바구 못하실 사정이 있단 말인교? 지난 번 호랭이 잡으러 갈 때는 나리 가시는 곳에는 지도 같이 가야한다 그케놓고… 나리를 피시는 사람으로서… 어딜 다녀오셨는지 알아야 할 의무란 게 있는교.

이정인 : 앞으로도 밤에 외출할 일이 종종 있을 것 같네. 걱정 마시게. 조심히 다닐 테니…….

서원 : (뭔가 떠올랐다는 듯, 누가 들을까 싶어 작은 목소리로) 혹시 연심 품은 여인 네라도 있능교?

이정인 : 아니라네.

서원 : 거기 아니면 왜 밤마실을 나가시는 겁니까?

이정인 : 허허… 모른 척해 주게…….

서원 : (잠깐 멈추어 혼잣말로) 가시내 만나러 가는 게 틀림이 없네. 틀림없어…….

이정인 :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태화강 선바위에 대해 얘기 좀 해보게.

서원 : 선바위는 뭐한다꼬 그라십니까?

이정인 : 참 말이 많네그려. 아는 만큼 이야기해 주게…….

### 췌 40. 선바위 근처(밤)

배를 탄 이정인이 선바위 근처에 도착한다. 노인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인서트) 썬 39와 연결

서원 : 선바위요? 백룡담에 있는 바위라강께요. 그곳 갯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높으신 양반네들이 시를 안 짓고는 못 배길 정도라 캅디다.

이정인 : 백룡담?

서원 : 예. 바위 근처에 옛날부터 백룡이 살았다 케서 백룡담이라 부른다 아인교. 물이 깊어가 사람이 빠져죽는 일도 많았지요.

(인서트) 처음 만난 노인의 모습(흰 옷, 유난히 긴 흰 수염 등)

이정인은 생각을 거두고 잠깐 주변의 풍경을 돌아보는데 과연 절경이다. 잠시 뒤 갑자기 물안개가 짙어지면서 주위 분위기가 변하고, 멀리서 배를 탄 노인이 이정인 쪽으로 다가온다.

노인 : (배에 앉아서 반가운 얼굴로) 왔는가?

이정인 : 어딜 다녀오십니까?

노인 : (미소만 짓는다.)

이정인 : 저…….

노인 : 할 말이 있는가.

이정인 : 그것이…….

노인 : (달을 쳐다보며) 밤이 짧다네…….

이정인 : 제가 어르신 의 우인이 맞습니까?

노인 : 물론이라네. 술로 맺은 벗이지. (달을 가리키며) 저 밝은 달이 우리 우정의 증인이고.

이정인 :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 말해보게.

이정인 :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노인 : 그것이 궁금했구려. 내가 누구라 여기는가?

(인서트) 썬 34에서 노인이 해모수 이야기하는 부분,

썬 38에서 이백이 자신의 친구라 말하는 부분,

썬 40에서 서원이 백룡담 이야기하는 부분

이정인 : 이 세상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노인 : 이곳 사람이 아니면?

이정인 : (고민하다가) 인간으로 변한 요물…….

노인 : 요물? (크게 웃는다.) 짐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곳 강에 사는 백룡이라네. 자네 말대로 요물이라면 요물이지. 왜, 사람이 아닌 것과는 벗어날 수 없다 여기는가?

이정인 : (미안한 얼굴로)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을 만날 때마다 기이한 느낌이 들어…….

노인 : 내가 누구인지가 무어 그리 중하겠는가? 안 그런가?

이정인 : (멋쩍은 미소를 짓는다.)

노인 : 어디 보자… (강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이곳에 산지도 꽤 오래 되었네.

이정인 : 어쩌다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노인 :

(무슨 일로 이곳에 사느냐 물으니

대답 대신 히죽히 웃어 보이나

마음은 저절로 한가롭다

복사꽃 둥둥둥 떠가고

물은 아득하기만 하네

여기야 바로

판 세상인 것을)

아름다운 절경 때문이라네. 검은 듯 푸른 수면은 그 끝을 알 수 없고(강물 클로즈업), 바위인 듯 산 인 듯 솟은 층암하며 (선바위 클로즈업), 물빛 위로 비치는 바위 그림 자까지… 내가 유명하다는 산이며 강이며 바다며 다 가보았다네. 허나 이곳만큼 내 마음을 빼앗아 간 곳은 없었지.

(이정인을 쳐다보며) 이 강을 따라 가다 보면 동해와 만난다네. 자네 바다를 직접 본 적이 있는가?

이정인 : 그림에서만 봤을 뿐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노인 : 직접 보시게나. 말 나온 김에 바다 구경이나 가세.

#### 썸 41. 대화강 하류(밤)

이정인과 노인이 한 배에 탔다. 노 젓는 사람이 없는데도 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떠간다.

#### 썸 42. 대왕암(밤)

배는 대왕암 근처에 도착한다.

노인 : 여기 바닷속에도 용이 살고 있다네.

이정인 : 물속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노인 : 어떨 것 같은가?

이정인: 바다의 왕이 사는 궁궐이 있는데, 진귀한 보석들로 가득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 문을 지키는 자는 물고기의 머리를 하고 있다 하지요. 책에서 읽었나이다.

노인 :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닐세. 그곳은 또 하나의 세상이지. 그렇다고 이곳과 너무 다른 곳은 아니라네. 새들도 있고, 꽃들도 있으니 말이야. 인간들은 다른 세상을 더 궁금해 하더군. 자기네가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 채 말이야…….

### 썸 43. 처용암 + 간절곶 + 동해(밤)

이정인과 노인이 탄 배가 처용암을 지나 간절곶에 다다른다. 곧 더 먼 바다로 나간다.

### 썸 44. 태화강 나루터(새벽)

동해 구경을 마치고 다시 태화강 나루터 앞에 도착한다. 이정인이 배에서 내린다.

노인 : 자, 그럼 난 가보겠네.

이정인 :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노인이 탄 배는 다시 강 쪽을 향해 떠나고, 떠나는 노인을 이정인은 오랫동안 바라본다.

### 썸 45. 나루터(밤)

며칠이 지나고 이정인은 다시 나루터를 찾는다. 나루터에 도착하니 노인이 먼저 마중을 나와 있다.

이정인 : 제가 오는지 어찌 아셨습니까?

노인 :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질 않는가… 어이 배에 타시게.

이정인이 배에 올라탄다.

노인 : 혹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말해 보게.

이정인 : 어디든 갈 수 있습니까?

노인 : 그렇다네.

이정인 : 동정호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노인 : 이즈음 그곳의 풍광도 볼 만하지. 잘 되었네. 나도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는데.....

#### 썸 46. 동정호 + 악양루(밤)

이정인과 노인이 탄 배 주위로 안개가 짙어지더니 주위를 분간할 수 없다. 잠시 뒤 안개가 걷히자 배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다.

노인 : 오랜만에 오니 회포에 잠기는구려.

이정인 : 여기가 동정호란 말입니까?

노인 : 그렇다네.....

이정인 :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다인 듯 넓습니다.

이정인은 처음 보는 경치에 놀라, 노인은 감회에 젖어 잠시 서로 말이 없다.

이정인 : 혹시 저기 보이는 것이 악양루입니까?

노인 : 그렇다네.

(예로부터 듣던 동정호

오늘에야 비로소 악양루에 올랐네

오초가 동남으로 갈라져 있고

언제 보아도 천지가 다 떠 있는 듯

친구에게는 편지 한 장 없고

병든 몸에 남은 건 배 한 척뿐

관산 북쪽 고향은 전쟁 중이니

누각 난간에 기대어 눈물만 흘리네)

노인 : 두보의 시구려. 봉우들은 떠나고 없으나 풍경만은 그대로일세.

이정인 : 괜찮으시다면 벚들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그들을 떠올리는 듯 잠시 말이 없다

노인 : 다들 술고래였지. 두보는 관복을 잡히면서까지 술을 마셨다네. 이백은 더한 친구였어. 오죽하면 스스로를 술 취한 신선이라 불렀겠는가.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안 저잣거리에서 잠들기 일쑤였는데... 그때는 정말 즐거웠지... 시가 있고, 달이 있고, 벚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다네. 허나 지금은 다들 떠나고 나만 남았어.....

이정인 : 친구는 목을수록 좋다하지요. 앞으로는 저와 오래도록 우정을 쌓으시지요.

노인 : 태화강에 살면서 딱 하나 힘든 것이 바로 외로움이었는데... 자네를 만나 마음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다네.....

노인과 이정인이 탄 배가 동정호를 떠간다. 페이드아웃

#### 썸 47. 태화강(밤)

강 주변으로 반딧불이가 날아들어 마치 조명을 켜 듯 밝다. 이정인은 배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노인은 선바위 위에 올라 술을 마신다. 이정인이 그림을 그리다가 잠깐 판생각에 빠져 있자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이 배 위로 내려온다.

노인 : 그림 솜씨가 좋구려.

이정인 : (노인의 말에 정신을 차리며) 당치 않습니다. 그저 잔재주로 흉내 내는 정도의 실력이지요.

노인 : 시름이 있는 얼굴일세.

이정인 : .....

노인 :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은 근심이 찾아오지 못한다 했지... 술부터 받으시게 .....

이정인 : (술을 마신다.)

노인 : 자, 한 잔 마셨으니 이야기하게나.

이정인 : 저... 어찌 하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노인 : 그것이 걱정인가?

이정인 : 가뭄 때문에 고을 백성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 번 정성을 들여 기우제를 지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덕이 없는 모양입니다.

노인 : (이정인 뺨에 있는 상처를 쳐다본다. 그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듯한 눈빛이다.) 자네 탓이 아닐세. 인간들 욕심과 횡포 때문에 용신의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이정인 : 비가 더 늦는다면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먹을 물이 없어 백성들은 죽어 나갈 것입니다.

노인 : 흠... 그건 안 될 일이지... 내가 한 번 용신의 마음을 돌려놓아 보겠네.....

이정인 : 정말입니까? 그리해 주시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노인 : (웃으며) 목숨을 걸다니, 그건 안 될 말이네... 나와 오래도록 우정을 지켜가자 하지 않았나... 그런 소린 다시는 말게.....

이정인 : 허나.....

노인 : 정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면... 그 그림을 나에게 주는 걸로 함세.

이정인 : (그림을 쳐다보며) 이걸로 갚으시겠습니까?

노인 : 넘치는 선물이지... 내 소중한 벗이 친히 그린 그림이니... 그걸로 충분하네.  
(노인은 이정인의 그림을 소중히 접어 소맷자락에 넣는다.) 이제 곧 날이 밝을 걸세.  
그만 가 봐야지.....

이정인 : (머리를 숙이며) 정말 고맙습니다.

#### 썸 48. 태화강(밤)

배 위에 누워 있던 노인이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든다.

#### 썸 49. 동헌 내아 마당(밤)

이정인이 초조해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 썸 50. 태화강(며칠 뒤 낮)

강에 용오름이 생기더니 그 기둥이 이내 백룡으로 변한다. 백룡은 높은 하늘을 날면서 구름을 모은다. 어느새 구름은 시커먼 먹색으로 바뀌고,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백룡은 다시 태화강 속으로 돌아간다.

#### 썸 51. 고을 여기저기(낮)

(몽타주)

-비 내리는 소리에 놀라 뒷간에서 불일 보던 아이, 옷을 추스르는 것도 잊은 채 뛰쳐 나온다.

-내리는 비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편다.

-주막거리 상인도 물건이 비에 젖는 것을 잊은 채 거리를 뛰어다닌다.

-비가 어찌나 반가운지 책 읽던 점잖은 선비마저 얼썩덜썩 어깨를 들썩이고, 가마 타고 가던 대갓집 아씨도 창문을 열고 비를 맞는다.

-잠자던 강아지도, 고양이도, 거리로 나와 꼬리를 흔든다.

#### 썸 52. 동헌(낮)

서원이 동헌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며 이정인을 찾는다.

#### 썸 53. 누정(낮)

누정으로 이정인을 찾으러 간 서원, 이곳에도 이정인은 없다.

#### 썬 54. 신불산(밤)

이정인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돌무덤 앞에 서 있다. 이곳은 기우제를 지내고 내려오는 길에 보았던 아이의 시신을 묻은 바로 그 무덤이다. 멀리서 서원이 이정인을 향해 헉헉대며 산을 올라온다.

서원 : 나리!!! 오만데를 다 찾아댕겼습니다.

이정인 : (아무 말이 없다.)

서원 : 비가 옵니다. 비님이 오신다카니까요!

이정인 : (여전히 시선을 돌무덤 쪽으로 향한 채 말이 없다.)

서원 :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며) 나리? 나리?

이정인 : 귀 안 먹었네…….

서원 : 인제사 용신님 화가 풀렸는가 봅니다.

이정인 : (계속 돌무덤을 바라보고 있다.)

서원 : 비가 쪼매만 더 일찍 내렸으면 이 아이도 안 죽었을지 모르는데… 부모도 없이… 불쌍한 늙…….

이정인 : 그간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서원 : (쭈스러워하며) 아입니다. 뭐… 호랑이 사냥 갔을 적에는 좀 심겁하긴 했는데… 인제라도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이정인 : (먼 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백룡 노인에게) 정말로 고맙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린다.

#### 썬 55. 논(낮)

농부들이 밝은 얼굴로 노래를 부르며 모내기를 한다.

낭창낭창 배리 끝에

무정하다 울 오라비

나도 죽어 환생하면

…….

#### 썬 56. 선바위 맞은편 벼랑(밤)

(자막) 수개월 뒤

어느덧 계절은 가을이다. 선바위 맞은편에 있는 벼랑 위에 두 칸으로 지어진 정자가 보인다. 그곳에 이정인과 백룡 노인이 함께 앉아 있다. 이정인이 손수 현판 글자를 쓰고 있다.

노인 : ‘입암정’ 이라…….

이정인 : 어르신을 위해 지은 정자입니다. 제가 있든 없든 개의치 마시고 이곳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노인 : 그럼세… 고맙네그려…….

이정인 : 고마운 것으로 치자면 제가 훨씬 더 큼니다.

노인 : (선바위 쪽을 보며) 이곳에서 보는 경치도 참 마음에 드네.

### 썸 57. 입암정(밤)

(디졸브) 노인과 이정인이 바둑을 두며 여전히 벼으로 지내는 모습이 사계절 변화에 따라 보여진다.

### 썸 58. 선바위(밤)

여러 해가 흘러 다시 계절은 봄. 이정인은 선바위 위에 올라가 무언가를 쓰고 있고, 노인은 백룡의 모습으로 하늘을 날고 있다. 잠시 뒤 백룡이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이정인 옆에 앉는다.

노인 : 세월이 참 빠르지… 자네와 만난 지 5년이 넘었으니…….

이정인 : 덕분에 그간 가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노인 : 부사 자리에서 물러나면 무엇을 할 생각인가?

이정인 :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입암정에서 느긋이 지내는 것도 좋겠지요…….

노인 : 나와 함께 여행하는 것은 어떤가? 명산과 바다를 유람하고, 물속 세상에도 가 보고 말일세.

이정인 : 마다할 연유가 있겠습니까? 데려가 주신다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선바위에 앉아 있는 노인과 이정인의 모습에서 천천히 태화강으로 화면이 옮겨진다.  
페이드아웃

### 썸 59. 입암정(낮)

태화강 선바위의 경치가 절경이라는 소문을 듣고 한양에서 양반들이 찾아온다.

양반 1 : 듣던 대로 절경이구려…….

양반 2 : 이리 경치가 좋으니 시를 짓지 않을 수가 없군.

입암정에 앉아 시를 지어 주고받는다.

## 썸 60. 입암정(낮) 2

양반들이 벽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고 있다.

양반 1 : 그림 한번 기가 막히는구만.

양반 2 :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나 솜씨가 훌륭하네.

양반 1이 일어나서 그림 앞으로 다가간다.

양반 1 : (그림을 유심히 본다.) 어라… 이보게, 여기 뭔가가 있네…….

양반 2 : (그림 앞으로 다가온다.) 무엇이 있단 말인가?

양반 1이 그림을 들자 비밀스런 공간이 나온다. 양반 1이 놀란 얼굴로 양반 2를 쳐다 본다.

양반 2 : (비밀 공간의 문고리를 연다.) 서책일세…….

서책 표지에는 <백룡전>이라고 쓰여 있다.

## 썸 61. 한양 세책방(낮)

기생 : 제일 인기가 많은 책이 무엇이오?

세책방 주인 : 이 책이라오(표지에 ‘백룡전’이라고 적혀 있다).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노인이건, 다들 이 책만 찾는다고.

기생 : 나도 그 책 한 권 빌려주시오.

## 썸 62. 기방(밤)

세책방에서 책을 빌려간 기생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고 있다.

### 편 63. 양반댁 안채(낮)

방물장수와 양반댁 마님이 마주 앉아 있다.

안채 마님 : 내가 부탁한 것은 갖고 왔는가?

방물장수 : 물론이지요. 인기가 워낙 많아서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요(보따리에서 책을 꺼낸다).

안채 마님 : (책을 확인하고 방물장수에게 돈을 두둑이 건넨다.) 오늘 일은 비밀로 하는 것 잊지 말게나.

방물장수 :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 편 64. 종로 피맛골(낮)

한 손에 책을 든 전기수가 바닥에 앉아 있다. 주위로는 붓짐 멘 상인, 옛 파는 아이, 닭 파는 어리장수, 담배 피는 노인 등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 있다.

전기수 : 이 책으로 말하자면 울산 부사 이정인과 백룡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고을에서 정말로 있었던 일이지요. 큰 가뭄이 들어 글썽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전기수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둘러앉은 사람들이 집중한다.

전기수 : 호랑이를 잡으러 마골산 목장에 도착한 이정인… 드디어 호랑이와 마주하는데…… (앉아 있던 전기수가 일어나서 호랑이와 싸우는 몸짓을 취한다.) 잠시 정신 놓친 틈을 다 호랑이가 이정인의 목을 물러고 하는 순간! (이야기를 멈춘다.)

어리장수 : (엽전을 전기수 쪽으로 던지며) 기다리다 숨넘어가겠소.

전기수 : (돈을 주머니에 챙기며) 그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소.

………

전기수 : …… (노인 목소리로) 내가 누구라 여기는가?… (목소리를 젊게 바꾸어) 인간으로 변한… 요물이 아닙니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전기수는 다시 노인 목소리로 바꾸어) 나는 이곳 강에 사는 백룡이라네…….

한참 이야기를 들려준다.

남자아이 : (이야기를 듣다가) 그니까, 백룡이 비를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어요?

전기수 : 고녀석 참, 성질 한번 급하네… 그 내용이 막 나오려는 참이니 조용히 하거라……

이야기가 끝이 나고 둘러앉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다. 전기수도 자리를 정리하고 가려는데 아까 그 남자아이가 다시 말을 건다.

남자아이 : 아저씨... 정말로 백룡이랑 같이 떠났을까요.....

전기수 : 그 뒤로 울산 부사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다는구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사도 지내지 못한다지.....

남자아이 : 우아... 나도 선바위에 가보고 싶다.....

전기수 : (웃음)

## 썸 65. 바닷속 세상

이정인과 백룡이 물속 세상에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보여진다. 페이드아웃

-끝-